대중들 신심 '감동'… 참회하며 걷다

노덕현 기자의 '결사 동참기'

'결사 동참'의 마음준비 없이
무작정 따라나선 순례 '반성'
첫날부터 물집 잡혀 고생길
함께 한 도반 도움으로 극복


만행결사 예비순례 도중 쉬고 있는 본지 노덕현 기자(왼쪽 두번째)와 스님들.

'부처님 성지 결사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마음가짐부터…'

태화산 예비순례 마지막 날 빗줄기가 그치고 마곡사 해탈문을 지날 때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그동안 '기자'라는 허울에 싸여, '취재'라는 핑계대기 좋은 구실로 인해 '결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인도만행결사는 '결사'다. 그동안 부처님 8대 성지를 관광, 혹은 단순한 성지순례로 찾는 것에서 부처님 발자취를 따르는 수행운동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를 바꿔보자는 현대판 불교개혁 불사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잘못됐다고 느낀 것은 태화산 예비순례가 진행되는 한국문화연수원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서였다. 입구부터 늘어서서 결사에 임하는 서약서를 쓰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보며 '아! 내가 안일했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준비가 외형적인 것에 있었다는 데 있었다. '100여 명이 걷는다', '새벽부터 걷는다' '비오는데 걷는다' 관심은 오로지 '걷는다'에 맞춰져 있었다. 결사가 걷기대회가 아님에도 마치 걷기대회를 취재하듯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걷기를 연습하고, 걷는 데 편한 아웃도어 용품을 사는 데 집중했다.

인도 현지에서 함께 정진하는 다른 대중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원활한 취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보다 '불교계 언론'이라는 결사의 한 구성축으로 '어떻게 기사와 영상을 보는 불자, 혹은 일반시민들이 신심을 더 내게 할 수 있을까'란 치열한 취재준비가 필요했다.

처음 인도만행결사를 제안한 자승 스님은 부처님이 당시에 걸었듯 맨발로 순례를 하겠다고까지 말했다. 파상풍 등의 위험으로 주변에서 만류하여 무산됐지만 왜 그런 의견까지 냈을까를 생각하면 한 명의 기자이면서 한 명의 결사대중이 되어야 했다.

무거운 마음을 덜어준 것은 바로 동참기 취재 과정에서 본 결사대중들의 모습이었다. 3박 4일 동안 결사대중이 보인 것들은 함께 걷느라 지친 몸과 달리 신심은 더욱 차오르게 했다.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용맹정진'이 무엇인지를 길 위에서 보여준 호계원장 스님은 비교적 젊은 나이를 자신감으로 삼았던 기자가 한걸음 더 걷고 뛰게 만들었다.

정말 목이 마를 때 먹으려고 배낭에 넣어 놓은 오이를 마지막 깔딱고개에서 기자에게 건넨 스님, 첫날 물집이 많이 잡혔다는 말에 본인의 발가락 양말을 선뜻 건네준 보살님은 대중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우의 하나 걸치고 10여 시간 길 안내를 맡은 봉은사와 조계사 종무원들, 새벽 1시 반부터 식사를 준비해 어두운 농로를 달려 결사 대중에게 공양을 전한 한국문화연수원 직원들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원력이 기자의 마음에서 하나로 모이자 거짓말처럼 셋째날에는 물집으로 인한 발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났다. 마곡사 경내로 들어서자 30여km를 걸어온 다리를 끌고 더 좋은 사진과 영상을 위한 뜀박질조차 가능했다.

기자들은 이번 예비순례에서 자자(自恣)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결사대중의 '취재'를 위한 배려인지, 기자답게 글로 하라는 큰 그림인지 이렇게 체험기를 통해 참여하지 못한 자자를 대신한다. 그리고 결사대중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음 순례에는 '무작정 간 후회막심 체험기'가 아닌 '작정하고 간 발심 동참기'로 찾아뵙길 다시 한번 마음 먹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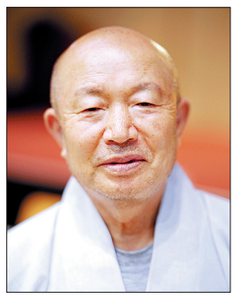
공주 태화산=노덕현 기자

결사 대중에게 듣다

만행결사의 첫 발이 드디어 내딛어졌다.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의 태화산 예비순례를 통해서다. 인도 만행결사라는 대장정의 시작점에서 대중은 무엇을 느꼈는지 들어봤다. 정리=노덕현 기자

"가행정진 기회 마련해줘 감사"

최고령 참가자 **무상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최고령 참가자인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이번 순례에 대해 "가행정진의 꿈을 이루는 첫 발"이라고 평가했다. "젊어서 해인사 선방서 용맹정진할 때를 떠올리곤 한다"는 스님은 마음 속 이판승으로의 꿈, 그리고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에 대한 꿈을 함께하게 해준 결사대중에게 감사를 표했다.

"처철마다 선방에서 느낀 희열을 다시 느낍니다. 다행히 큰탈없이 주위의 도반 스님들 도움으로 잘 마칩니다."

스님은 "만약 종단에서 소임을 보지 않았다면 동안거에 상월선원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며 "인도성지순례도 여러 차례 갔지만 그때는 차로 다녀 인도만행결사 소식을 듣고 무조건 간다고 마음을 먹었다. 무엇보다 후배들 정진에 방해되지 않고 어려운 불교에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사에 작은 걸음 보탰으면"

최연소 참가자 **백준엽 씨**



24살의 나이지만 만행결사에 임하는 자세는 누구보다 진지했다.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2학년인 백준엽 씨는 "상월선원 결사가 지치고 힘든 저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선사했듯, 만행결사 또한 불자대중이 함께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예비순례에서 준비는 했지만 다소 힘든 과정이었다. 하지만 태화산에 인드라망이 펼쳐진 것처럼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 원만 회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백 씨는 경북대가 위치한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며 고립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백 씨는 "정서적인 압박감에 포기하고 휴학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 때 상월선원 스님들이 전한 울림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부처님 걸은 길을 따라 걷는 스님들의 발걸음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오래걷기'로 작은 걸음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불교에 좋은 인식 갖는 계기"

가톨릭 신자 **이태경 씨**



이태경 씨는 이번 만행결사 태화산 예비순례에서 이른바 '마리아 보살'이라고 불렸다. 온 가족이 가톨릭 신자인 이 씨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지인과 함께 우연히 방문하며 불교수행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추운 겨울 천막 법당서 정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르침이 뭐길래,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궁금했지요." 이 씨는 이번 예비순례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이 씨는 "스님들이 대중들과 함께 걸으며 이끌어주는 모습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자연 속을 걷는 가운데 그 안에 우리 전통인 사찰과 불교가 자리하고 있음에 불교에 대한 친숙함도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가족신앙인 가톨릭을 저버릴 순 없지만 불교에 대한 애정도 높아졌다는 이 씨는 스스로를 가톨릭 신자이면서 불자라고도 했다.

"다음에도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순례단 상처투성이 발에 뭉클"

김명숙 동국대일산병원 수간호사



"하늘에서 내리는 장맛비가 마치 법비처럼 느껴졌어요. 물집잡히고 부르튼 순례단의 발을 치료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료팀 스텝으로 참석한 김명숙 동국대일산병원 건진운영팀 수간호사는 공주 예비순례에서 받은 감동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3일 간 90km 이상을 걸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발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였다.

김 수간호사가 묵는 숙소는 의무실이 됐고 순례 일정 이후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이들로 북적였다.

김 수간호사는 "구급차를 타고 순례단 후미에서 폭우를 뚫고 묵묵히 걷는 분들의 뒤를 따랐고 일정이 끝난 후에는 그분들의 발을 보며 뭉클했다"며 "이번 순례의 최종 목표는 인도만행결사지만 이번 3일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또하나의 여정임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상월선원의 인도만행결사에 결사에 앞서 진행된 태화산 예비순례에서 순례대중은 3일 동안 총 108km를 걸었다. 사부대중은 어두운 새벽길을 시작으로 엄숙한 순례를 시작했다. 해탈문을 지나 산능선을 오르고 마을길을 지나고 논밭길과 다리 위를 걸으며 결사의 의미와 성불의 서원을 되새겼다.

이모저모



새벽 1시 30분의 밥짓기

배식 | 결사대중은 아침과 점심을 길 위에서 해결했다. 이들을 위해 새벽 1시 30분부터 밥짓기는 시작됐고, 2시 30분 어두운 농로를 거쳐 한국문화연수원 직원들로 구성된 배식팀이 텐트를 치고 배식을 위해 준비했다.



뒤에 차량 2대 옵니다

안전 | A와 B그룹으로 나뉜 행렬의 앞뒤에는 박기련 동국대 법인사무처장과 나인성 대승마야투어 이사, 윤승헌 동국대 대외협력과장 등이 있었다. 결사대중과 30여km를 걷는 가운데서도 앞의 선두차량과 후미차량을 조율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했다.



어둠 속 안전봉 든 길잡이들

안내 | 교차로마다에는 안전띠와 안전봉을 든 장영욱 종무실장, 남궁강 행정관, 정웅채 사무관 등을 비롯한 봉은사 종무원들과 조계사 종무원들이 있었다. 폭우 속에서 수시간 교차로에서 대중을 기다리고 다시 다음 교차로로 묵묵히 이동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둘째날


급격한 기상악화로 걷기는 어려웠지만 참가대중의 원력은 폭우를 뚫었다.


중간중간 휴식마다 서로를 격려해주는 참가대중들의 모습.

셋째날


순례의 핵심은 발. 휴식시간 발을 높은 곳에 두고 말리는 모습.


3일간의 순례를 마친 대중들이 동그랗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